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21일 목요일 음 10월 25일 (2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맑다가 오후들며 차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7-8℃, 낮 최고 기온은 17-18℃로 예상되며...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sunrise/sunset and moonrise/set times for Jeju.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관심, 보통. Rows show safety information and interest levels.

월드뉴스

홍콩 시위대, 이공대서 '필사의 탈출'

밧줄 타고 하수구 기어가고...



밧줄을 타고 다리를 내려오는 시위대.

홍콩 경찰이 대학 점거 시위대의 '최후 보루'인 홍콩 이공대 봉쇄를 나흘째 이어가는 가운데, 시위대는 경찰의 봉쇄를 뚫고 탈출을 시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18일 저녁부터 1000명 넘게 체포되면서 현재 캠퍼스에는 100명이 채 안되는 시위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캠퍼스 내 시위대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공대를 전면 봉쇄한 채 시위대가 투항하기를 기다리는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 시위대는 수차례 이공대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앞서 지난 18일 시위대 수십명이 이 학교 건물 옆 7m 높이 옥교에서 밧줄을 타고 고속도로로 내려온 뒤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하지만 이 경로도 경찰에 의

해 곧바로 봉쇄됐다. 캠퍼스 내에 남아있는 한 시위 참가자는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나는 현장에서 밧줄을 잡고 있었다. 나도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경찰이 와서 우리를 뒤쫓았다"고 말했다. 시위대 십여명이 마스크를 쓰고 비닐을 입은 채 하수도 터널로 들어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시위대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캠퍼스에서 무사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목요일론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조선왕조실록을 읽다보면 요예(要譽)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명예를 구한다'는 뜻이지만 당시 위정자들 사이에서 평가되던 요예는 가히 긍정적이지 못했다. 요예는 통상 수령의 역할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다. 수령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지침보다는 백성을 위한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가 아래로부터 나오게 하는 행위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지방에 부임한 수령들은 상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지역민들의 칭송이 평가에 관건이 됐다. 칭송을 얻는 길은 소송을 신속·공정하게 처

지금 위정자에게 요예(要譽)가 필요한 때

리하고,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며, 기근을 구제하고, 세금 감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수위가 달랐고,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선정(善政)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특히 17세기 양란 이후 늘어난 세금 지역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수령이 이를 해결해 줄 때 칭송으로 왕조에 전달됐다. 수령의 순수한 선정으로 베푼 사례도 많았으나 조선후기로 올수록 폭정을 일삼고도 부임지를 떠날 때는 선정비를 강요했던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다. 그래도 지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예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한 생존의 수단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요예는 백성의 요구에 대한 수용적 의미도 있지만, 수령의 교섭능력에 따라 조세 징수에 대한 변동이 가능했다는 점을 볼 때 비판적인 의미가 앞섰다. 기저에는 국가 재정의 곤란을 낳게 하는 상호적

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요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풍수재해에 따라 중앙에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던가, 2020년 21.7%의 역대 최고의 사회 복지예산을 확보했다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데, 법적인 규정과 규범을 통해 요예를 공식화했다는 것이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즉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기반시설로 사회에 재분배되는 것 또한 과거에는 수령의 재량권이 높았다면, 현재는 정부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요예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일수록 정책의 소용과 예산의 재분배를 통한 직·간접적으로 지역민이 상생의 측면에서 요예가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2공항, 동물테마파크, 꽃차밭에 들어서는 사파리월드, 송악산 유원지 등 각종 개발사업들이 들어서는

족속 갈등의 불씨로 피어나고 있다. 이에 행정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세외수입 확대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개발 사업이 허가되는 지리적, 지형적인 자연적 요건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과거 요예의 재량권은 임금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령의 특권이였다. 현재는 특별법에 위임 받은, 지방분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지사의 몫인 것이다. 명예를 구한다는 것은 도민에게서 얻는 것임을 볼 때 지금의 지사는 도민에게서 명예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행정집행 위정자로서 난무하는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는 모습은 직접 귀 기울여 소통해 가려야 하는 노력을 해설하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앞선다. 이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 도민을 위한 요예를 펼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열린마당

제주문화원 문화대학을 수료하며



신동화

제주문화원 문화대학 수강생

2년 전 35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끝이라는 느낌과, 이제부터는 어떤 것에도 속박없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설레임, 이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먼저 직장을 그만두신 선배님을 통해 제주문화원에서 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문화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얻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역사·민속·문화·자연을 이론적으로 알아가면서 문화유적답사를 통해 느끼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일깨움의 현장이었다. 특히 분묘문화, 민속신앙, 방아유적 등은 나의 관심대상이어서 더욱 열심히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제주를 떠나 살아 본 적이 없

김장김치 한 포기 의미



유승훈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하루 세끼식사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반찬이 있다. 배추, 무, 갓, 파에 갖가지 양념이 버무려져 그 이름을 달리 해 여러 종류가 올라온다. 바로 우리네 김치이야기다. 식생활 패턴이 쌀밥에서 대체식품으로 변하고 있지만 김치만큼은 대체식품이 없는 듯하다.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김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변화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0가구 중 6가구가 김장을 직접 담을 계획이라고 한다. 시간관치를 구입하겠다는 비중도 19%로 조사됐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김장을 생략하거나 구입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밀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교대(평) 100-500원. 사용기준 25K-1포 (100~500평)사용.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양배추브로컬리 무양파 배추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감자, 무우, 마늘. 금탕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